

2024 길림 건강 10 대 뉴스



의료진이 되원하는 어린 환자와 손벽을 마주치며 따뜻한 작별을 하고 있다.

1. 약을 매개로 세계로, 길림성 중의약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

2024년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3회 세계중의약과학기술대회 및 2024 장춘국제약간강산업박람회'가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 20여 개 국가와 국내 29개 성, 시, 자치구 및 항항, 오펜, 화교 기업들이 참가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648개를 넘었고 그중에 세계 500강 기업과 중국 500강 기업 및 업종 중점 기업이 199개에 달했다. 이번 박람회는 길림성의 중의약 현대화 발전을 다그치고 '중의약 대상'에서 '중의약 강성'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추진 작용을 했다.

2. 인삼문화를 발양하여 길림성 중의약 문화 발양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

길림성중의약관리국은 '중의약문화봉사의 달', '인삼 향기 추석을 가득 채우다' (參香滿中秋), '장백산 인삼 감상회 및 중의약 문화 원유회 등 계절 활동과 제1회 중의약선경 기대회 등 3대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역로삼향' (驛路參香) 인삼과 문화관광의 융합발전 대상을 가동하고 중의약+문화관광의 깊은 융합을 촉진하여 길림성의 인삼문화를 힘써 발양했다.

3. 1회 진료, 1회 신청! 길림성 위생건강부문 헤민봉사 전면 전개

길림성 위생건강부문은 <길림성 위생건강부문 '1회 진료 1회 신청' 등 진료편민봉사 전면 보급 실시 방안>을 제정, 발부하고 '1회 진료 1회 신청'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환자의 첫 진료의 유효시간을 연장하여 진료에서 발생하는 중복 신청을 피했다. 현재 봉사는 이미 307개의 2급 및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구역의 적용률은 100%에 달하며 연인수로 263만 5,300명에게 봉사를 제공했다.

4. 7가지 일을 집중처리! 길림성 신생아 출생 '하나의 일' 사업 가동

길림성은 <출생의학중명>, 예방접종증명서, 호구 등기(출생등기 신고), 주민의료보험 등기, 의료보험 납부, 사회보험카드 신청, 출산 의료비용 결산 등 7가지 신생아 관련 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오프라인 시범사업은 이미 길림시와 송원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사평시, 연변주 등 곳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항에 대한 집중적 처리를 점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5. 립하산삼 길림성 의료보험 약품목록에 포함, 공제(共濟) 지불 범위 확대

2024년 1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약품목록베이스에 인삼편을 인삼편(원삼), 인삼편(립하산삼)으로 세분화했다. 보험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과 약방에서 립하산삼을 구매할 때 개인의료보험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립하산삼의 비용은 개인 의료보험카드 진료 공제 지불 범위에 포함되었고 공제 인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로 확대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의료보험 약품목록베이스에 인삼편을 인삼편(원삼), 인삼편(립하산삼)으로 세분화했다. 보험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과 약방에서 립하산삼을 구매할 때 개인의료보험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립하산삼의 비용은 개인 의료보험카드 진료 공제 지불 범위에 포함되었고 공제 인원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로 확대했다.

6. 14개 봉사 '진에서 처리' 및 '촌에서 처리'! 길림성 '15분 의료보험 봉사권' 전면 구축

길림성은 의료보험 봉사표준을 통일적으로 규범했다. 의료보험봉사 기준 처리 사항 명세서를 인쇄 발부하고 14개 의료보험봉사는 '진에서 처리', 8개 의료보험봉사는 '촌에서 처리'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외 봉사방식을 적극적으로 혁신하고 정부봉사 종합창구에 기증봉사소를 설치한 기초에서 여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의료보험 + X' 봉사모식을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군중들에게 편리를 제공했다.

7. 선천성 심장병 아동 17명을 성공적으로 구조, 길림성 '천사의 마음' 서장지원대상 가동

2024년 6월초 길림성 제8차 서장

지원간부중심조는 '천사의 마음' 서장 지원대상을 가동했다. 길림대학 제2병원 의료팀을 조직하여 시가제에서 아동 선천성 심장병에 대해 검사와 치료를 수행했다. 서장지역의 아동에게 무료 진찰, 길림 방문, 수술 치료, 회복후 반회 등 4가지 단계의 구조부족을 제공했다. 지난 2년간 이 대상은 연인수로 8,500여명을 진찰했으며 30명에 달하는 아동들을 성공적으로 수술했다.

8. 세계 최초! 길림성 RhD형 혈액 새 서열 발견

2024년 8월말, 길림대학 중일련 의병원의 수혈과에서는 '참대공 혈액' 중에서도 희귀한 혈액형을 발견했다.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해 1개의 희귀하고 새로운 유전자 돌연변이 부위를 확정했고 이로 인해 RhD 혈액형의 희귀 혈액형이 발생했다. 현재, 미국 국가생물정보중심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국제의 유명한 인간 DNA 서열 데이터베이스 'GenBank'에 정식으로 수록되었다. 번호는 'JLZZ01'이며 새로운 유전자로 세계에 공유되고 있다.

9. 새로운 돌파! 길림대학 제2병원원 우수혈 기술, Stanford A형 대동맥 겹층 치료

2024년 12월, 길림대학 제2병원 심장혈관외과 류극상 교수팀은 <국제심장잡지>에 세계 최초의 우수혈 Stanford A형 대동맥 겹층 수술 완료에 관한 학술문장을 발표했다. 국제적으로 이 수술에 사용되는 혈액은 평균 3,000~5,000밀리리터에 달한다. 류극상 교수가 건립한 '류씨 Stanford A형 대동맥 겹층 수술 체계'는 심혈관 외과에서 가장 어렵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술을 보편적이고 최소 절개(微创)로 수술이 필요한 수술로 바꾸어 국제 선두수준에 도달했다.

10. 길림성 최초! 길림대학 제1병원 란소조직 랭동보존 성공

2024년 5월, 길림대학 제1병원 산부인중심에서는 18세 중증 재생장애성 빈혈 환자에게 란소조직 랭동보존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는 길림성에서 최초이다. 이 수술은 사춘기 전 여자 어린이, 청소년 및 화학요법으로 지연할 수 없는 가임 여성의 출산력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서 주로 병으로 인해 출산능력이 손상되기 전에 란소조직을 랭동하여 병세가 완치되고 출산이 필요할 때 다시 체내로 이식하는 것이다.

9년을 이어온 '아리랑의 별' 모임의 애심 기부



'아리랑의 별' 모임 회원들,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에 애심 기부금 쾌척

'아리랑의 별' 모임 애심인들이 9년간 해마다 기부금을 모아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에 전달해 불우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일전, '아리랑의 별' 애심모임의 인사들은 연길촬영관촬영에서 애심 기부활동을 조직하고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현장에서 애심인사들은 모금함에 사랑의 마음을 담은 성금을 전했다. 또한 현장기부외에도 사유로 활동에 참석하지 못한 애심인사들은 위챗으로 애심기부금을 전해오기도

했다. 현장에서 립봉춘 회장은 '아리랑의 별' 애심모임을 대표해 애심인사들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 6,000원을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에 전달했다. '아리랑의 별' 애심모임은 불우 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애심인사들의 단체이다. 지난 9년간 '아리랑의 별' 애심모임은 해마다 기부활동을 조직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연변 TV '사랑으로 가는 길' 프로에 전했다. 립봉춘 회장은 애심인사들의 드팀 없는 견지와 애심에 고마움을 전하고 "사회 각계 애심인사들의 사랑은 불우한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로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애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불우 이웃 돕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리전기자

연길, 공익활동으로 따뜻함 전해



최근, 연변서예가협회와 량산서화학회, 소양미문화전파유한회사(小央美文化传播有限公司)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춘련 만가정 진인 공익활동'이 연길 락백가구에서 진행되어 다가오는 음력설에 명절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다.

이번 활동은 중화의 전통문화와 미덕을 고양하고 고향을 열애하는 것을 취지로 유명한 서예가들을 특별 초청해 시민들에게 춘련을 선물함으로써 광범한 대중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아울러 아이들이 재능을 전시하고 학습하는 교류의 장으로 되었다.

현장에서 특별 초청된 10여명의 서예가들과 아이들은 축복의 마음을 담아 정성들여 쓴 춘련을 시민들에게 증정하느라 분주했다. 서예가들은 삶에 대한 사랑과 축복을 매 글자에 담아냈고 아이들도 펴내는

애되어 보였지만 서예에 대한 열정은 서예가들 못지 않았다. 춘련을 받아안은 군중들은 전통문화의 매력은 물론 다가오는 새해에 특별한 선물을 받았으며 즐거워했다. 시민 김녀사는 "이번 행사는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해주고 전통문화의 매력을 한껏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로해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서예를 좋아하는 100명의 아이들이 모집해 현장에서 백자복(百字福) 서예작품을 함께 만들었다. 아이들이 정성껏 써내려간 '복(福)'자의 형태는 제각각이었지만 전국 인민에 대한 아이들의 깊은 축복이 담겨져 있었다. 이번 활동은 연변주 청소년들의 서예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전시 하였고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전국 인민들에게 연변인민들의 아름다운 축원을 전달했다.

/리전기자

연길시민정국, 로인 주택 개조

2024년, 연길시민정국은 곤난한 로인들의 주택 개조 대상을 적극적으로 계획, 추진해 86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개조했다.

이 대상은 군중들의 실제 수요를 출발점으로 전문적인 평가팀을 조직하고 로인들이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직면한 생활 불편 등 두드러진 문제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조항목을 고지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현 단계 곤난한 로인들의 주택 개조는 주로 복도,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생활 장소와 가구 배치, 생활 보조기구, 세부 보호시설 등을 조정하거나 수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손잡이 설치, 휠체어, 성인 이동변기, 샤워 좌석, 로인 지팡이, 목욕 의자, 야간충전등, 혈당계, 전자혈압계 등 7가지 필수 항목과 56가지 선택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한가구, 한사례'의 원칙과 로인들의 신체상태 및 주택환경에 따라 '개성화' 개조 방안을 제공했고 로인들의 일상 생활에 존재하는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었으며 로인들의 자립 능력과 생활 품질을 향상시켰다. 설치 과정에서 사업 일꾼들은 로인들에게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조항목을 고지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우씨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움직이는 데 시월치 않다. 손잡이를 설치하니 일어설 때마다 넘어질 걱정이 없다. 정말 인민을 위해 설치하는 좋은 대상이다. 로인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길림민정

우리 협회의 코기러기 최순희 회장을 널리 알리고 싶다

—병마와 싸우는 80대 로인의 감사편지



최순희 회장

나는 일찍 연길시동산소학교에서 퇴직하고 연길에서 살다가 2006년에 딸이 사는 대련으로 이주한 오월숙(82세)이다. 타향에서 홀로 살기가 갑갑하여 나는 최순희 회장이 이끄는 대련시 중산구조선족로인협회에 가입하여 춤도 추고 노래도 배우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운명의 작간이라고나 할까, 작년 12월 20일부터 두 다리에 쥐가 올라오면서 걸음걸이가 불편하던 것이 후에는 전신에 여기저기 통증이 심하여 꼼짝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니 요추간판탈출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일생동안 크고작은 수술을 12번이나 하여 옷을 벗으면 온몸에 상처자국인 나는 할 수 없이 또 수술대에 올라야만 했다. 그때 딸이 한국에 가있다 보니 수술을 해도 간호해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뼈를 깎아내는 척추수술을 혼자 힘으로 이겨내고 입

원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간병인을 찾자니 간병비용 일당 370원이 아깝다. 하여 하는 수 없이 정자 혼자서 수술후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자고 하니 앞이 캄캄하기만 했다. 바로 이때 우리 협회 최순희 회장이 발 벗고 나섰다. 그는 내가 수술한 후 한아름 넘치는 과일과 뜨끈뜨끈한 밥과 리리를 해주고 병실에 들어섰다. 최회장은 구미에 맞는 음식을 나에게 먹여주고는 따뜻한 물로 나의 온몸을 씻어주고 어지러운 병실을 깔끔히 청소해주었다. 수술후 나는 수술 후유증으로 좀처럼 걸을 수가 없었다. 최회장은 또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이럴 때일수록 많이 걸어야 한다면서 나를 부축하여 병원 복도에서 걷기 운동을 견지하도록 도와주었다. 어느 날, 최회장은 새벽 3시에 감이 몰물 피어오르는 소갈비탕을 들고 와서 식기 전에 빨리 먹으라고 말했다. 최회장이 어둠을 헤치고 딸땀창

이 되면서 가져다준 소갈비탕을 입에 넣는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일찍 길림재무무역학원(현 길림재경대학) 분과를 졸업하고 한국 계명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최순희는 대련공업대학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에 퇴직했다. 대학 교수 사업을 끝낸 그를 여러 단위들에서 초빙했지만 결연히 거절하고 아무런 보수도 없는 중산구조선족로인협회 회장직을 떠메고 나섰다. 로인협회 회원들의 애호와 후원에 따라 노래와 춤 배우기, 들놀이, 뽕깎은 이야기 모임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70명의 회원을 가진 협회로 부상시킨 최회장, 사망하는 로인이 생기면 밤중이라도 달려가서 후사를 치러주는 최회장... 대련이라는 이 제2고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로인들의 본보기이고 로인협회의 훌륭한 코기러기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최회장을 나는 널리 알리고 싶다!

/오월숙 수술, 리심민 정리